

외대학보

새내기특집 888 호

2007년 2월 21일 (수요일)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박철 편집인경 주간 양민영 편집장 홍은미 인쇄인 홍용주 신문사 2173-2503, 962-7128(F) 학생기자실 (서울)2173-2504 FAX 2173-2505 (영인)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황산리 산 89

눈부시게 빛나는

당신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서울배움터 독일어과
새내기 박지은 양

용인배움터 중국어과
새내기 김동윤 군



사진: 광부길 · 김미리내 기자

총장 신임서 환영사

“학교는 여러분에게 땀을 요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내기 ‘출신사’ 여러분!
여러분의 입학은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전문 지식과 지성 그리고 국제적 감각을 연마하게 될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전쟁 직후의 폐허가 된 이 땅에 세워진 후 대한민국의 세제화

를 선도하며 유난히 명문 사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진취적 정신과 애국심으로 불리는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오대양 육대주를 개척하며 오늘날 전 세계에 월드와이드웹(www)에 필적하는 ‘월드와이드 외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우리 외대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산을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러한 국제 네트워크의 자랑스러운 일원으로 편입되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외대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의 전통을 만들고, 한국의 지도자가 되고,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해 학교의 모든 교수님들은 여러분을 경령력 있는 글로벌 리더로 조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그에 걸맞은 열의와 노력을 요구할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공부하지 않으면 졸업하지 못하는 원칙이 확고히 지켜질 것이고, 사회에서는 ‘외대 출신들은 무슨 일이든 맡겨도 틀림없다’라는 믿음이 뿌리 내리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는 여러분들이 대학생활 내내 엄격한 자기 규율을 통해 성숙한 지성인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공과학교에 재학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자유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자율성을 동반하지 못할 때 방종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예전처럼 남들이 시키는 것만 하는 피동적인 존재에서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능동적인 존재로의 변모는 그 권리만큼이나 진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랜 겨울을 보내고 만물이 약동하는 봄입니다. 오랜 추위를 견디고 맞이하는 봄이기에 봄의 햇살은 더욱 따사롭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시련 없는 성숙, 고통 없는 행복은 없다는 명백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학문과 우정과 사랑을 켜켜이 쌓아 꽃피우기를 믿습니다. 젊은 외대인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환영의 인사를 보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박 철

등록금 7.5%인상

재학생·신입생 차등인상 적용

올해 등록금이 7%의 300 선을 돌파했다. 이는 우리학교 등록금이 300만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을 제외하고 책정된 금액을 말한다. 우리학교의 등록금은 올해 최초로 재학생과 신입생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차등인상률’이 도입돼 재학생은 6.58%, 신입생은 9.86%(평균 7.5%)가 인상되었다. 교외와 학생회비 등의 기타 추가비용을 제외한 재학생은 3,135,000원, 신입생은 4,123,000원(입학금 포함)이다.

지난 1월 9일(화)부터 31일(수)까지 5차례에 걸친 등원조정위원회(이하 등조위)에서 학생대표 5인(양배움터 총·부학생회장, 대학원총학생회장, 학교대표 5인(기회조정처장, 양배움터 학생복지처장, 예산과장, 경리과장)은 등록금 인상률의 조율을 진행했다.

당초 학교 측은 △학생회비 확대 △강학금 증액 및 신설 △신규 교원 인용 등을 이유로 재학생 7.8% 신입생 12.2%(평균 9.15%)인상을 제의했다. 학생대표 측은 △학헌부지 매입비 △교직원 퇴직금 혼합장선 비용 △교직원 임금인상 등의 사항에서 부당한 인상요인을 주장

하며 5%이하로 등록금 인상률을 낮출 것을 요구했다. 교직원 임금인상의 경우 외대직원의 임금 수준이 타 대학에 비해 현저히 높을 뿐 아니라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장기기간의 파업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끼쳤음을 이유로 들었다.

또 하나의 정면인 ‘차등인상률’에 대해 학교 측은 수혜자 부담 원칙을 내세우며 신입생들에 대한 장학지원 증가분의 신입생 부담을 주장하며 내년의 등록금 인상 기준은 07학번 역시 올해 재학생들의 등록금액으로 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각 학생회비 측은 논의의 완결을 요구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재조정안이 적용돼 평균 7.5%의 인상률이 반영된 등록금 고지서가 발송됐다. 이에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 문열호(영·영미문학 04)은 “학교 측의 부당한 부분의 등록금 인상요인에 반대한다”며 “학생들에게 부담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korgobells@hufs.ac.kr

21일(수), 22일(목) 양배움터 새터 가요



▲ 지난 해 서울(위), 용인(아래) 새터 중앙 공연 모습

신입생과 재학생이 한 곳에 모인다. 서울배움터는 오는 22일(목)부터 24일(토)까지, 용인배움터는 21일(수)부터 23일(금)까지 2박 3일 일정에 각각 새기세로배움터(이하 새터)를 진행한다. 서울배움터는 강연도 속초에 위치한 설악대명문도에서, 용인배움터는 글로컬악문도와 설악현대관 등에서 진행하게 된다. 용인배움터는 △자유문예 △동서유럽 △인문대 △자유전공학부 강연과 콘서트에 머물고, △아리아프리카학대 △정보산업공과대 △자연과학대 △경상대 △충무학생회 △성철합동총학생위원회 △동아리연합회 △국제스포츠레저학부가 현대관도를 이용하게 된다.

주요 일정은 양배움터 모두 직권과 비슷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배움터는 첫째 날과 둘째 날에 파·단체별 일정을 갖고 둘째 날 저녁에는 총학생회에서 준비한 중앙공연을 진행한다. 용인배움터는 첫째 날 용인심내체육관에서 중앙공연을 갖고 둘째 날에는 단체별 일정과 함께, 동아리를 소개하고 체험하도록 하는 문화교류를 진행한다.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 문열호(영·영미문학 04)군은 “새터를 통해 전대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재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승호 기자

이중전공 및 심화전공 07학번 의무 시행

07학번부터 ‘이중전공 및 심화전공’ 제도를 의무 시행한다. 신입생들은 이중전공 혹은 심화전공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선택하여 이수해야 한다. 이중전공이란 입학 당시의 전공 이외에 다른 하나의 전공을 더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심화전공과정은 두 가지 전공이 아닌 제 1전공을 심화전공과정을 추가 이수하여 이수하는 제도다.

바뀌는 제도 하에서 이중전공자는 두 개의 전공 각각 54학점, 교양과목 26학점(실용외국어 필수 4학점 포함)을 이수하게 된다. 또한 심화전공자는 전공 75학점과 부(복수)전공 21학점, 자유선택 12학점, 교양 26학점(실용외국어 필수 4학점 포함)을 이수해야 하며, 졸업 필수 이수학점은 134학점으로 동일하다. 이중전공과

심화전공은 1학년 겨울방학 중에 신청해야 하며, 이중전공은 3월 지원한 3차명 중에서 배정받게 된다. 두 제 모두 신청 후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하다.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 문열호(영·영미문학 04)군은 “그 동안 타학교에 비해 비슷한 학점을 이수함에 두 제 2전공 제도의 한계로 아쉬웠던 부분이 ‘이중전공’ 제도도 많이 보완됐다”며 “학생들에게 취업 등의 다양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07학번 이전 학번들은 신청자에 한해 이중전공 및 심화전공이 배정되고, 배정받은 학생들 역시 올해부터 바뀐 학사제도에 따르게 된다.

김승호 기자
korgobells@hufs.ac.kr

정시 경쟁률 예년과 비슷해

서울(나) 4.20 : 1 (다) 22.31 : 1 용인(다) 4.78 : 1

2007학년도 정시모집 입시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해 최종경쟁률은 △서울배움터 나군 4.20 : 1 △다군 22.31 : 1 △용인배움터 다군 4.78 : 1로 나타났다. 또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학과는 △서울배움터 나군 독일어교육과(7.20 : 1) △다군 영어통번역학과(32.50 : 1) △용인배움터 다군 아프리카어과(7.96 : 1)로 발표됐다.

올해는 7차 교육과정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락 지원 추세였으나 경쟁률은 작년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입학과 측은 이 같은 결과를 보인 것이 상이 권 학교입수목 외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정시모집 결과에 대해 입학과 한 관계자는 “경쟁률은 작년과 비슷했지만 지원자의 정수가 해마다 소폭 낮아지고 있다”며 “최근 우리학교가 학교 홍보에 힘쓰고 있지만 어학 전공을 기하려는 사회적 흐름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전형별 경쟁률은 다음과 같다.

지원 구분	총 모집인원	총 지원자	경쟁률	
서울	나군	1214	5102	4.20
	다군	190	4240	22.31
	영어통번역학과	68	265	3.89
용인	다군	1550	7422	4.78
	영어통번역학과	48	126	2.62
	인문계	20	38	1.90
출신자전형	실용외국어	51	288	5.64
	출신자전형	51	288	5.64

김대석 기자
sucker@hufs.ac.kr

인천 송도에 통번역센터 건립 협약 맺어

우리학교는 지난 달 9일(화) 인상수 인천시청과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내에 통번역센터(가칭) 건립을 합의하는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2008년 8월까지 통번역센터, 국제 비즈니스 정보센터, 한국어문화교육원 및 기숙사 등 7개 시설이 조성된다.

새로 건립될 통번역센터는 통번역 전문 인력체계를 통해 국제회의 통역 및 공식문건 번역을 지원한다. 또한 국제비즈니스정보센터는 국제 지역연구를 통해 외국 기업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어문화교육원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문화에 교육용 실시할 계획이다.

임영웅 기획조정처장은 통번역센터 건립을 통해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거듭나려는 송도지구와 외대의 인적자원이 상호 발전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협정을 기반으로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일민 기자

해외 4개 대학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우리학교는 지난 겨울방학동안 상해외국어대학교(상해외대)를 비롯한 4개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맺었다. 지난 1월 1일(월) 인도네시아의 하사나비 국립대학교 및 우다라나 국립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데 이어 18일(목)에는 상해외대와, 이번 달 3일(토)에는 캄보디아 왕립 프놈펜대학교와 협정을 체결했다.

우리학교가 캄보디아 소재 대학과 협정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프놈펜대학교 측은 한국의 발전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대학 한국어와 발전에 우리 학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상해외대의 협정에서는 박철 총장이 직접 상해에 방문해 교류 및 연구자 상호 파견 △수용학생 교류 △교류 및 전문 학술 세미나 공동 주최 등을 약속했다.

주유진 기자
dbwts1rst@hufs.ac.kr

오는 27일(화)

전기 학위수여식 열려

양배움터 전기 학위수여식이 이번 달 27일(화)에 열린다. 지난 해에 이어 분리 시행되는 이번 학위수여식은 서울배움터는 오전 11시에, 용인배움터는 오후 2시 30분에 각각 배움터 노년극장에서 열린다.

지난 2월 초에 졸업 예정자가 확정 공고되었으며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는 서울배움터 1449명, 용인배움터 1275명의 학생들이 학사학위를 받게 된다. 졸업 예정자의 학위유형은 소속 학과와 교과과정에 맞추어 학, 학위증 수령시 수령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이번 전기 졸업식에는 전년도 달리, 학사기운의 본실을 학기 위해 대여할 때 보증금을 내야 한다. 학사기운과 학사기운은 졸업식 전에는 졸업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당일에는 자신의 소속 단과대 별 지정된 장소에서 대여 받을 수 있다.

김지연 기자
hoeffriand@hufs.ac.kr

학사 Q&A

수강신청은 어떻게 하나?
신입생 수강신청은 개강하기 전 지정된 날짜에 할 수 있지만 미리 알지 못했다면 개강 후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수강신청에 관한 정보는 해당 교과과 학사지원과에서 배부하는 강의시간표 책자를 참고하면 수강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수강신청을 어떤 취소가 가능한가?
수강신청을 해서 수업을 들었지만 더 이상 수강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개강 직후 수강신청 변경기간(2월 2일) 8일까지는 자유롭게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하지만, 4월 중에 수강신청 취소기간에는 취소만 가능하다. 하지만 12학점 미만으로는 수강신청 취소가 불가능하다.

성적이 좋지 않은 과목을 다시 수강할 수 없나?
한 학기동안 수업을 들은 과목의 성적이 C+이하라면 이후 동일 과목이나 대체과목으로 재수강할 수 있다. 재수학 학기 수업인수의 3/4이 지난 기조 성적이 자동으로 삭제되고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은 인정된다.

수업이 아닌 다른 활동으로 학점을 얻는 방법은?
우리학교에는 다양한 활동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실용외국어 과목은 외대 재학생이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다. 외국어연수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언어 평가시험(LTE)에서 일정 등급을 취득하면 실용외국어 4학점 이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학계발행 중 실시하는 논문발표대회 등에 참여한 학생에게 별도의 성적부여 없이 2학점을 인정해 주는 제도도 있다. 그리고 재학 중 노동봉사기 인정하는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하면 학점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이중전공이란 무엇인가?
07학번부터 시행되는 이중전공이란 자신의 전공 외 다른 하나의 전공을 더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중전공을 이수한 경우 졸업장에는 두 가지 전공을 이수하였음이 기재된다. 하지만 비사범대학의 학생이 사범대학 학과를 이중전공으로 이수할 수는 없다.

입학한 학과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 전과 하고 싶을 때는?
전과는 해당 학과(전공) 입학정원의 10% 이내의 인원을 선발한다. 지원은 2학년 1학기(예정)에서 1학년 수료학점을 34학점 이상 취득하고 총 성적 평균이 3.50이상이어야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비사범대학 학생이 사범대학 학과의 전과를 지원할 수 없으며 동일 학부 내의 전과, 양배움터 간의 전과 역시 불가능하다.

휴학 신청은 어떻게 하나?
휴학은 재학생 등록기간인 2월 또는 8월 중순에 신청할 수 있다. 1회 신청할 때 한 학기 혹은 1년간 휴학신청을 할 수 있지만 재학기간 중 3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또한 군 입대로 인한 휴학신청을 할 경우에 재학생은 입대일 이전, 휴학생은 휴학기간이 끝나기 전에 군 입대 휴학을 해야 한다. 군 휴학 시에는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병역

법에 따라 복수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학사지원과에 제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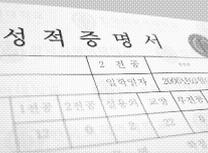
학사경고는 무엇인가?
한 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2.0미만이거나 학기 등록을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학사경고를 받을 수 있다. 학사경고를 받으면 가정보고 성적보고 학사경고장이 발송된다. 1.5미만으로 학사경고를 3회 이상 받거나 1.5 2.0의 성적으로 4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재학자격이 상실된다.

장학금은 어떤 것들이 있나?
우리학교 장학금은 입학장학금, 성적장학금, 특별장학금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성적장학금은 2 단계(대학이나 학교 내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총장장학금, 수당장학, 우정장학 순으로 지급된다. 보통 학교홈페이지에서 성적장학금을 알 때 다음 학기 성적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성적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각 단과대학별로 규정한 최소이수학점을 취득해야 하며 최소 성적 3.00이상이어야 한다.

박유빈 기자 mazingabk@hufs.ac.kr

사랑하는 후배들이!

1. 학점결핍이 새내기에게 미치는 영향



고된 입시를 거쳐 당당히 외대에 입학한 A군. 대학생도 되었으니 이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생을 즐기기로 한다. 강의 출석보다 플스방 출입이 더 잦았고, 레프트를 쓰다 잠들기보다 인터넷에서 어찌 못 본 드라마를 다운받다가 날밤을 지새운 날이 많았던 그. 그렇게 한 학기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것은 영장만뿐이나 무덤대는 학사경고였다! 이후 A군은 쏟아지는 부모님의 잔소리와 주위의 골치 않은 시선 때문에 2학기를 잠시 우울하게 보냈다.

대학은 '자유'의 정장'이라고도 하지만 꼭 그만큼의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오늘의 즐거움은 반드시 내일의 학점에 반영되기 마련이다. 장학생들은 새내기 때에는 암묵적으로 신입생 어드바이저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학 문화를 즐기면서도 꾸준히 강의에 출석하고 복습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좋은 학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2. 5000 외대인의 선택? 동아리활동!



취업, 토익점수, 학점, 어학연수 등 앞으로 할 일은 신디타미같은데, 그 중에 네가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도 있었나? 대학생만이 할 수 있고, 그동안 미뤄왔던 너의 젊음과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말이다. 어쩌면 현재 외대에 있는 140여개의 다양한 동아리가 해답을 찾아 줄지도 모르겠구나.

이항근(영어·통번역 06)은 1년째 사진동아리 'Angles' 활동을 하면서 미래 사진작가의 꿈을 키우고 있어, 비록 활동하는 데 많은 시간을 빼앗긴 하지만, 그만큼 얻는 것도 많고 자신의 사진들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 기쁜 일, 힘든 일을 함께한 사람들과 평생 기억될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너에게도 추천하더라. 또 서울배우터 동아리연합회장 김경신(사회·방송영상 05) 선배는 동아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너의 자신을 모습을 찾게 될 거라고 말했다. 이제 다양한 활동 중에 너의 취미와 적성에 맞는 활동을 고르는 일만 남았다. 선배들이 권하하는 게 아니라구. 일단 한번 해보라니까. 어서!

3.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짜라 (경력개발센터 운성묵 과장님의 조언)



내가 우리학교 경력개발센터에서 몇 년째 취업 상담도 해주고 취업 전선에 있는 학생들을 지켜봐 왔는데, 중요한 건 저학년 때부터 확실하게 준비한 자만이 성공한다는 거야. 1·2학년 때부터 해 줘야 할 일이 많거든. 우선 학점관리를 해야겠지? 학점은 학교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평가하는 척도도 될 테니까. 영어를 비롯한 어학공부도 미리미리 해서 점수를 받아 놓도록 하고, 방학 때 하고 싶은 일과 관련된 아르바이트나 인턴활동을 한다면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겠지. 교내에서의 활발한 활동은 대인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니까 학회든 동아리 활동든 열심히 하는 게 좋아.

경력개발센터 홈페이지(http://hufs.njob.net)에서는 아르바이트나 과외활동을 추천하고 채용 정보도 제공하고 있어, 동영상이 있고, 이력서 쓰는 법, 성공공기 등 한번 둘러보면 도움이 될거야. 준비하는 신입생들에게 기회가 올 테니,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

4. 너는 있냐? 나는 있다! 외국인 친구!



"그 이름도 친한한" 외대에 당당히 입학도 했잖아. 외국인 친구를 좀 소개하고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방법이 여기에 있다!

방법 1. I.S.O(국제 학생회)에 '버디(buddy)프로그래' 신청서를 작성한다. I.S.O에서는 '버디프로그래'를 통해 교환학생과 한국학생 간의 1:1 만남을 연결해준다. 신청자들은 인터뷰를 거쳐 성격이 맞거나 언어가 통하는 친구를 만날 수 있다. 일단 1:1로 버디(친구가 되면 시간을 정해 함께 공부도 하고 여가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방법 2. 적극적인 자세로 먼저 다가가기. 현재 우리학교에는 교환학생제도나 BRICs 연계전공 프로그램, 외국어연수평가원을 이용하는 외국인 친구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한국어를 배우려 온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지만, 한국 친구들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쉽게 친해지지 못한다고 한다.

외국어도 배우고 새로운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따뜻한 마음으로 외국인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와 보자.

5. 모름지기 용돈은 내 힘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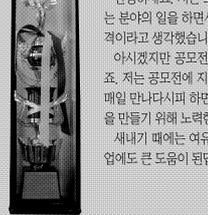


무릇 성인이라면 자신의 힘으로 앞개뿔을 해야 하는 법. 하지만 아무 정보도 없이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세상을 헤맨다면 험난한 인생 공부를 하게 될 것이요.

소속 학교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소. 이곳에서는 학교 특성에 맞는 아르바이트, 특히 어학제외의 경우에는 과외 수업 요청이 많으니 꼭 한번 들어가 보길 바라오. 혹은 '홈라이프(www.hufslife.com)' 라는 사이트도 괜찮소. 이곳은 본디 외대인을 위한 정보 공유 사이트지만 인기일이나 일을 구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위해 아르바이트 또한 소개해 주고 있소.

하지만 세상은 험난하오. 아직도 시간당 3,480원의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 이 많다 들었소. 그럴 시에는 사립강 관할 지방노동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하거나 전화(☎ 1350) 상담을 요청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소.

6. 읽다면 도전하라, 공모전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는 대학생 금연 광고 공모전에서 입상한 '우상수'라고 합니다. 관심이 있는 분야의 일을 하면서 재미도 느끼고 경력도 쌓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니 공모전이 제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인터넷 고내 '경력개발센터'에서 정보를 얻으면서 공모전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광고 포스터만은 지선 적이 허다하죠. 저는 공모전에 지원하기 위해 공모전 준비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함께 꾸몄습니다. 4개월 동안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면서 광고포스터 만들고, 광고홍보와 교수님과 주변 선배들에게 끊임없는 조언을 받으며 완벽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입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새내기 때에는 여유시간이 많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공모전을 차분히 준비해 나가면 재미도 얻을 수 있고 취업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김대식 기자 sucker@hufs.ac.kr
정은실 기자 celesbes@hufs.ac.kr



학교식당 200% 이용하기

인문과학관 1층에는 학생식당이 있어 배고픈 외대 학우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다. 학생식당은 아침 8시 20분부터 저녁 6시 40분까지 운영해 많은 자취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메뉴는 기본 식사 3가지와 떡볶이, 라면, 토스트 등 분식거리까지 고루 갖추고 있다. 가격도 1400원에서 2200원 선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라면이 가능한 메뉴도 있다.



공강을 책임진다! 시청각 교육원(9:00~23:00)

서울배우터 시청각 교육원 1층에는 마음껏 소리 내며 어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어학 학습실과 DVD, 비디오, 위성방송을 볼 수 있는 TV시청실을 갖추고 있다. 3층 자료 대출실은 각종 어학 자료 및 영화·드라마 시청각 자료까지 2박 3일 동안 대출해 준다.



S라인은 학교에서 만들어진다

시청각교육원 지하에는 샤워실을 뿔 켜가 있어 런닝머신 등 각종 운동기구 시설이 준비되어 있다. 헬스장 이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이곳에서 학내 수업이 이루어지는 시간대는 피해야 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국제화 시대의 카페!

국제관 2층에 있는 인터넷세라 라운지는 외대생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라운지 내에 커피숍이 있어 여러 종류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외국 신문들과 잡지를 구비해 놓고 있으며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대화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PC방 가지 마라! 학내 전산실이 있다!

서울배우터 신 본관 1층에는 외대인만을 위한 용강로전산실이 마련되어 있다. 외대인들은 수 십대의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이나 문서작성을 한다. 스캐너와 프린터기도 구비되어 있어 학외로 나갈 필요 없이 이곳에서 전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용인배우터에는 학내 곳곳에 전산실이 있다. 인문경상관 2층, 어문학관 3층, 정보산업관 1~4층, 자연과학관 1층 등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으니 자신이 주로 다니는 건물의 전산실을 이용하면 된다.



원만한 대학생활을 도와드립니다.

학생생활상담연구소는 개인 혹은 집단 상담을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돕고 있다. 전문 상담가와 진로, 성격, 대인관계, 가족 문제, 학업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MBTI(성격 유형 검사), MMPI(다면적 인성검사), 직업흥미검사 등도 실시한다. 꼭 문제가 있지 않아도 자기 발전을 원하는 학생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한다. 모든 상담과 검사 비용은 무료이며 상담 내용은 비밀로 보장된다. 서울배우터에는 학생회관 3층에 용인배우터에는 학생회관 2층에 있다.



후생복지관에는 없는 게 없다

후생복지관은 학생복지에 관한 모든것들을 담당하는 곳이다. 이곳 1층에는 학생식당과 매점이고, 2층에는 우리 은행과 학생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실이 있다. 3층에는 학사 관련 서류를 발급해주는 학생서비스센터와 문구점, 안경점, 서점, 미용실 등 각종 서비스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학생들이 자주 들르는 곳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음식을

용인배우터에는 학생 식당이 어문학관 1층과 후생복지관 1층 두 곳에 있다. 두 곳 모두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한다. 가격대는 1800원에서 2500원선으로 매우 저렴하다. 특히 후생복지관 식당은 분식의 종류가 다양해 학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그대에게

대학 문턱을 넘은 새내기들이여, 도서관에서 학문에 대한 열정을 불태워 보자. 용인배우터 도서관에는 40만권의 장서가 보유되어 있다. 1, 2층의 일반자료실에서 도서 대출이 가능하며, 3층에는 신문이나 잡지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정기간행물실과 DVD감상 및 시청각자료 대출이 가능한 전자정보자료실이 있다.



친구와의 수다가 고를 때는?

공강 시간 친구와 함께 미니홈피 파도타기를 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학생 휴게실이다. 휴게실은 학내 여러 건물에 있지만 선배들은 인문경상관 로비의 본관 1층 매점을 추천한다. 이곳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와 편한 테이블이 제공된다. 특히 본관 1층 매점에서는 TV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보내기에 안성맞춤이다.

